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 부요에 관한 연구

임 병 진(영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sep1017@ynu.ac.kr

요 약

인류의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 :3)” 말씀하시어 120세에 대한 언급이 있고, 모세도 120세에 사망을 하였다. 최근 인간의 기록에 의한 최고령자는 프랑스 출신의 잔 루이즈 깔망(Jeanne Louise Calment) 할머니로 122세로 사망을 하였다. 이렇게 볼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 전후로 근접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에 생활이 늘어나게 되어 은퇴설계의 중요성과 은퇴 이후의 부요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전에 은퇴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은퇴설계로 은퇴 후에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비 크리스찬도 부유하고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현재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3층 보장제도와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서를 통하여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 부요에 대하여 부요를 방해하는 요소와 성경적으로 부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평균수명, 은퇴설계, 3층보장제도

1. 서론

우리나라의 일정 36년간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32.4세, 여자는 35.1세로 평균 33.7세이던 것이 6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남자가 74.36세, 여자가 81.20세 평균 77.78세로 약 60년 간 약 44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면 우리나라도 120세가 다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구약성서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 :3)” 말씀하시어 120세에 대한 언급이 있고, 모세도 120세에 사망을 하였다. 최근 인간의 기록에 의한 최고령자는 프랑스 출신의 잔 루이즈 칼망(Jeanne Louise Calment) 할머니로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일에 122세로 사망을 하였다. 이렇게 볼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 전후로 근접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이후에 생활이 늘어나게 되어 은퇴설계의 중요성과 은퇴 이후의 부요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어 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급격히 감소하고 동시에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OECD가입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젊은이들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다원적 연금제도 (multi-pillar pension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연금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위한 제도로는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3층 보장 제도로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연금 등 3원 체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도 이와 같은 3층 보장제도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다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되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뀌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3월 조세감면규제법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 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둬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마련한다고 해서 은퇴설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인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은퇴이후의 생활을 위해 일, 건강, 인간관계, 취미활동, 자금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기 보다 은퇴후의 생활기간이 더 길어

져 가고 있어 은퇴설계는 전 인생설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므로 인생설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3층 보장제도와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서를 통하여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 부요에 대하여 부요를 방해하는 요소와 성경적으로 부요키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은퇴 전에 은퇴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은퇴설계로 은퇴 후에 크리스찬 뿐만이 아니라 비 크리스찬도 부유하고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이 되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만을 이용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성서와 국내외 전문서적과 간행물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부자학 및 부요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은퇴설계의 정의와 은퇴 후의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우리나라의 3층 보장제도에 관한 문헌연구들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 부요를 성서와 일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II. 은퇴설계의 정의

2.1 은퇴설계의 정의

우리나라에 은퇴설계란 말이 들어 온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금융계에 미국의 CFP제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FPSB에서 발간한 은퇴설계와 종업원복리후생에서 정의한 은퇴설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는 은퇴 후 특별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과 각종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은퇴설계는 인생설계(Life Planning)의 의미로 은퇴 이후의 생활과 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설계를 인생설계로까지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기의 준비”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0세¹⁾부터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과 각

종 종신연금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은퇴생활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은퇴설계에 대한 준비가 취약하므로 국민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중산층의 경우 여러 가지 연금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다양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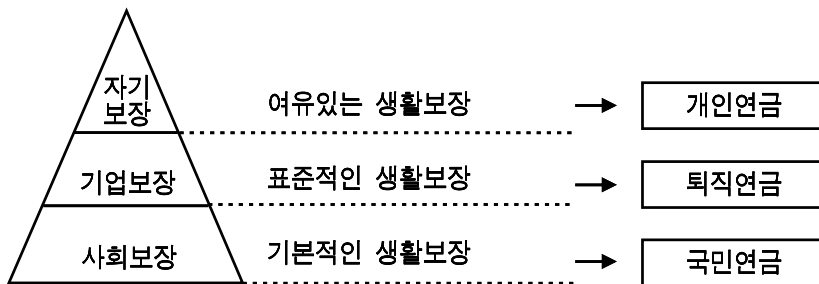
2.2 은퇴설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3층보장제도

대부분 국가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의 3층 보장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보장은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들의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적연금을 의미한다. 기업보장과 개인보장은 기업이나 개인이 주체가 되어 노후생활을 풍요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연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3층 보장체계란,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연금, 기업의 퇴직금제도에 근거한 기업연금, 개인의 저축형태로 이뤄지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층 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이미 도입하여 정착단계에 있으나, 기업연금은 법정퇴직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각 연금 제도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1> 3층 보장제도



1) 법개정으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Ⅲ. 은퇴설계의 필요성

3.1 은퇴 후 자유로운 생활

잠언 22장 6절, 7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이다. 젊어서 빛진 자가 되어 채주의 종이 되면 만회가 가능하지만 은퇴 후 빛진 자가 되어 채주의 종이 되면 만회가 불가능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채주의 종으로 구속을 받으며 자유롭지 않게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요측면에서 철저한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을 많이 해 보신 외국의 분들에게 “은퇴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은퇴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설문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취미생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인 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다섯 가지 모두 다 하나 같이 중요하지만 일이 첫 번째인 것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의 일은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오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설문결과의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나온 일은 우선 먼저 일의 첫째 조건으로는 평생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조건으로는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셋째 조건으로는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 넷째 조건으로는 타인의 반응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다섯째 조건으로는 경제적인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조건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조건에 맞는 일을 찾으면 성공적인 은퇴설계가 되고, 설문 결과의 다섯 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3.2 은퇴 후 소득보장

산업사회와 도시화 등 경제 사회적 환경여건의 변동은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은 은퇴 후 길어진 수명만큼 기본생계 보장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취업구조 및 생활조건에 대비하려는 정책 중 사회보장적 대책이 미흡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안되어 있어서 노인층의 빈곤문제가 크게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위하여 스스로 저축할 여유가 없이 정년퇴직과 함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들 중 대다수는 노후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하여 궁핍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머지않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 노후생활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선진국형 복지형태로 발전하겠지만 그것은 미래에 가능한 일이고 현실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전통적인 가족간의 긴밀한 부조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핵가족화 되면서 연금을 통한 노인 독립가구의 장기적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 및 자구노력이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3.3 조기 실업 대비

산업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가 유일한 소득원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근로자는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현대 산업체계에서는 실업을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성격과 모순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재해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섬유, 전자조립, 조선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위축되고 중화학공업, 첨단과학 분야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노동 수요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자의 중도실업은 증대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은퇴설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3.4 노령화 사회의 진전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21년 13.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노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책임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198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9.9명이 필요했으나, 2010년에는 4.9명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3.3명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생산인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효율성과 개선을 요하게 되었다.

[표] 연령층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이상	
		인구	%	인구	%	인구	%
1990	42,869	11,077	25.8	29,648	69.2	2,144	5.0
2000	46,789	9,917	21.2	33,705	72.0	3,168	6.8
2010	49,683	9,510	19.1	35,505	71.5	4,668	9.4
2021	50,586	7,989	15.8	35,972	71.1	6,625	13.1

3.5 평균수명의 연장

(가) 우리 나라의 인구 통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 현재 평균수명은 남자 71.7세, 여자는 79.2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5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10년 전인 1989년에 비해 남자가 4.9년, 여자가 4.1년의 수명이 증가된 것이며, 20년 전에 비해서는 남자 10.4년, 여자 9.7년이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 기대수명]

(단위 : 년, %)

2) 통계청,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 2001년7월.

연령	남 자				여 자			
	1999	1989	1979	89년대비 증가율	1999	1989	1979	89년대비 증가율
30	43.1	39.6	36.2	9.0	50.3	47.3	44.5	6.4
40	33.8	30.7	27.5	10.3	40.6	37.8	35.4	7.5
50	25.2	22.6	19.7	11.8	31.2	28.7	26.7	8.8
60	17.5	15.3	13.1	14.1	22.2	20.1	18.7	10.3
70	10.9	9.3	8.0	17.1	14.0	12.4	11.6	12.2
80	6.1	5.1	4.5	20.3	7.7	6.6	6.1	15.6

출처 : 통계청, 「1999년 생명표」, 2001. 7

(나) 노령화추세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OECD의 분석³⁾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노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며, 부양인구 비율은 현재는 OECD국가 중에서 3번째로 낮지만 2050년에는 6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노령화 추세]

(단위 : %)

3) OECD, 「2001년 한국경제보고서」, 2001.8.

연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70	83.8	78.2	5.6	7.2
1980	60.7	54.6	6.1	11.2
1990	44.3	36.9	7.4	20.0
2000	40.4	30.4	10.0	32.9
2010	42.6	28.4	14.2	49.9
2020	43.7	24.7	18.9	76.5
2030	54.5	24.8	29.8	120.3

주) 총부양비 = $\frac{0\sim1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15\sim64\text{세 인구}}$, 유년부양비 = $\frac{0\sim14\text{세 인구}}{15\sim64\text{세 인구}}$
 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64\text{세 인구}}$, 노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0\sim14\text{세 인구}}$

자료) 통계청

(다) 인구노령화의 의미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① 노령 빈곤층 증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상당 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자신의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준비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노후자금과 보장계획이 부족한 빈곤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이다.

② 장기간호계획 문제

장기간호계획(Long-term Health Care)은 확실히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더욱 오래 산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장기의료보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80세~84세의 노인들 중 1/3이, 85세 이상인 사람들 중

1/20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 보조와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⁴⁾

3.6 은퇴 후에 빈곤층의 사회문제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은퇴 이후 생활은 길어져 가고 있다. 은퇴설계가 없이 막연하게 은퇴 이후의 생활을 하게 되면 빈곤층의 경우 정부 부담이 되고 사회의 문제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젊어서 일찍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3.7 유니세프의 설문조사결과

유니세프에서 2002년 세계 17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노인 공경 사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7개국 중에서 17위로 노인공경사상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아 노후에 생활하는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스로 은퇴설계를 하여 스스로 노후의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은퇴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3.8 정부의 소극적인 노인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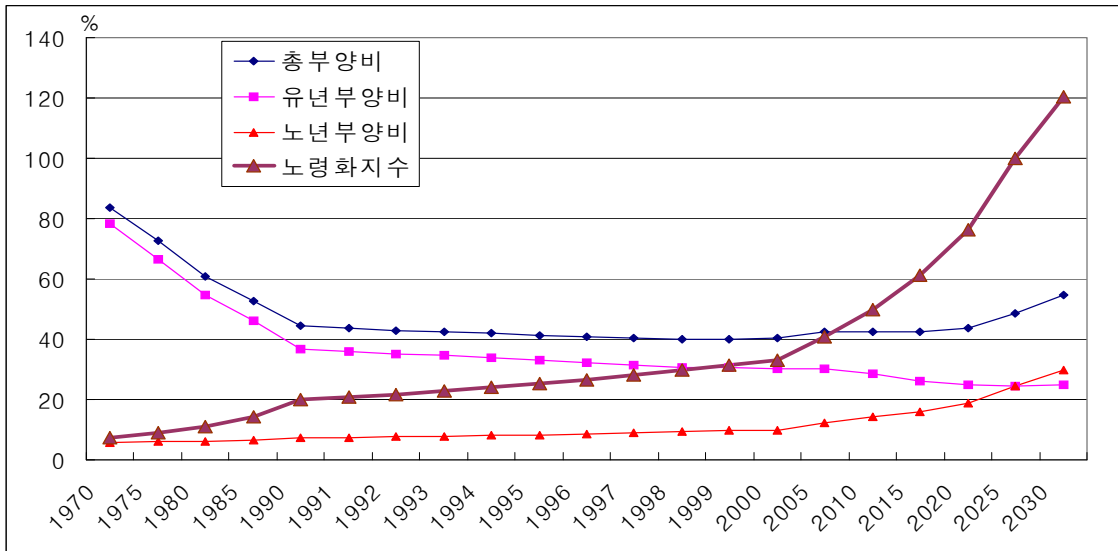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고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스스로 은퇴설계를 하여 스스로 노후의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은퇴설계로 부유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설계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3.9 노령화지수의 급상승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노령화 지수는 급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노령화도 스스로 은퇴설계를 하여 스스로

4) 은퇴설계의 필요성의 일부를 FPSB의 은퇴설계와 종업복리후생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음

노후의 생활을 해야 되어 은퇴설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한다.



IV.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 부요

4.1 부유를 방해하는 요소

4.1.1 청빈 사상

청빈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희 목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모두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신 15:4-6).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해야만 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신 15:11).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왕권을 형성한 이후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 소유와 경제력이 몇 사람의 손에만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대부분의 주민 층은 가난과 종속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변호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또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참된 부(富)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의 경건’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경건함이 생겨나게 되었다.” 차준희 목사(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상재 기자는 가톨릭신문에서 청빈운동이 12세기에 대부분 그리스도교적 기초 위에서 파생된데 반해 카타리파는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마니교적 이원론적 뿌리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난과 적극적 설교, 참회의 실천, 자선적 행동으로 성격 지워 지는 12세기 청빈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발두스파와 카타리파이다. 발두스 이단은 부유한 상인이었던 발두스가 1173년경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청빈과 속죄에 대해 설교하며 자국어인 된 성서를 읽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들은 스스로를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리옹의 주교가 그들이 평신도이며 라틴어 성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설교를 금지하자 발두스는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 참석하여 교회 인준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교황 알렉산델 3세가 청빈서원만 인정하고 성직자를 초청하지 않는 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불복해 계속 설교를 하자 1184년 이단으로 규정돼 파문에 처해졌다. 이에 발두스파는 보편적 사제직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한 청빈생활을 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권리가 있다며 점차 교회로부터 분리 이탈했다. 그들은 랑그도크와 프로방스 지방 및 북이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또다른 개혁세력들과 만나 연합해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다. 12세기의 청빈운동들이 대부분 그리스도교적 기초 위에서 파생된데 반해 카타리파는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마니교적 이원론적 뿌리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프랑스 알비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므로 알비파(Albigenses)라고도 불린다. 상인들과 귀향하는 십자군에 의해 전해진 마니교적 사상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세상은 악한 신에 의해 창조돼 지배받고 있는데 신약의 선한 신은 사람들을 물질세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천사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를 「순수한 사람」(카타리)으로 파견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금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강생을 부정했고 결혼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이단사상을 주장했다. 그들은 철저한 금욕생활을 하는 자신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부유하고 세속적 권력을 탐하는 가톨릭교회를 사탄의 회당,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성직자들을 위선자로 몰아붙이며 성사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상은 카타리파 교역자들의 철저한 금욕 청빈 생활의 모범과 함께 고단한 삶을 영위하며 부유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교회는 10여년간 꾸준히 재개종 운동을 펼쳤으나 실패하고 결국 1208년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알비 십자군이 결성되어 20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가톨릭신문<김상재 기자>

4.1.2 사탄의 방해

개혁성경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의 방해(시험)에 의하여 소유물이 없어져 가난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말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말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개혁신경 욕기 1장)

4.2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성경적인 부요

4.2.1 성공 부유학에 관한 정리

부유학에 관한 일반 문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마음 관련 성공 부자학자로 생각의 법칙을 저술한 제임스 알렌(톨스토이 제자)과 성공으로 가는 생각의 법칙을 저술한 오리슨 스웨트,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The magic of Thinking Big)를 저술한 데이비드 슈워츠,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를 저술한 벤 카슨(존수 홈킨즈 병원 소아과과장) 등을 들 수 있다.

- ☞ 마음관련 성공 부자학자 : - 제임스 알렌(톨스토이 제자) : 생각의 법칙
 - 오리슨 스웨트 : 성공으로 가는 생각의 법칙
- ☞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자학자 : - 월레스 와틀스 : 부자의 법칙
 - 캐서린 폰더 : 부의 법칙
 - 맥스웰 몰츠 : 성공의 법칙
- ☞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자학자 : - 노만 빈센트 필 : 적극적 사고방식
 - 로버트 솔러 : 불가능은 없다
 - 조셉 머피
 - 데이비드 슈워츠 : The magic of Thinking Big
- ☞ 언어 관련 성공 부자학자 : 케네스 블랜차드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 행동관련 성공 부자학자 : - 나폴레온 힐
 - T 하브 에커 :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
- ☞ 습관관련 성공 부자학자 : - 브라이언 트레이시
 - 스티븐 코비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앨 젠들 : 공간 원리(텍사스 리빙스톤즈교회)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자학자로는 부자의 법칙을 저술한 월레스 와틀스, 부의 법칙을 저술한 캐서린 폰더 성공의 법칙을 저술한 맥스웰 몰츠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자학자 적극적 사고방식을 저술한 노만 빈센트 필, 불가능은 없다를 저술한 로버트 솔러, 조셉 머피, The magic of Thinking Big을 저술한 데이비드 스위츠 등이 있다.

언어 관련 성공 부자학자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저술한 케네스 블랜차드가 있고, 행동 관련 성공 부자학자로는 나폴레온 힐,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을 저술한 하브 에커 등이 있다.

습관 관련 성공 부자학자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한 스티븐 코비, 공간 원리를 저술한 앨 켄들(텍사스 리빙스톤즈교회) 등이 있다.

4.2.2 크리스찬의 부유학에 관한 체계

성서를 통해 부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 관련 성공 부유, 생각과 관련 한 성공 부유,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유,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유, 언어 관련 성공 부자, 행동 관련 성공 부자, 습관 관련 성공 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크리스찬이 성공하고 부유하기가 비 크리스찬에 비하여 유리한 것은 성령이 말씀을 수레삼아 크리스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쉽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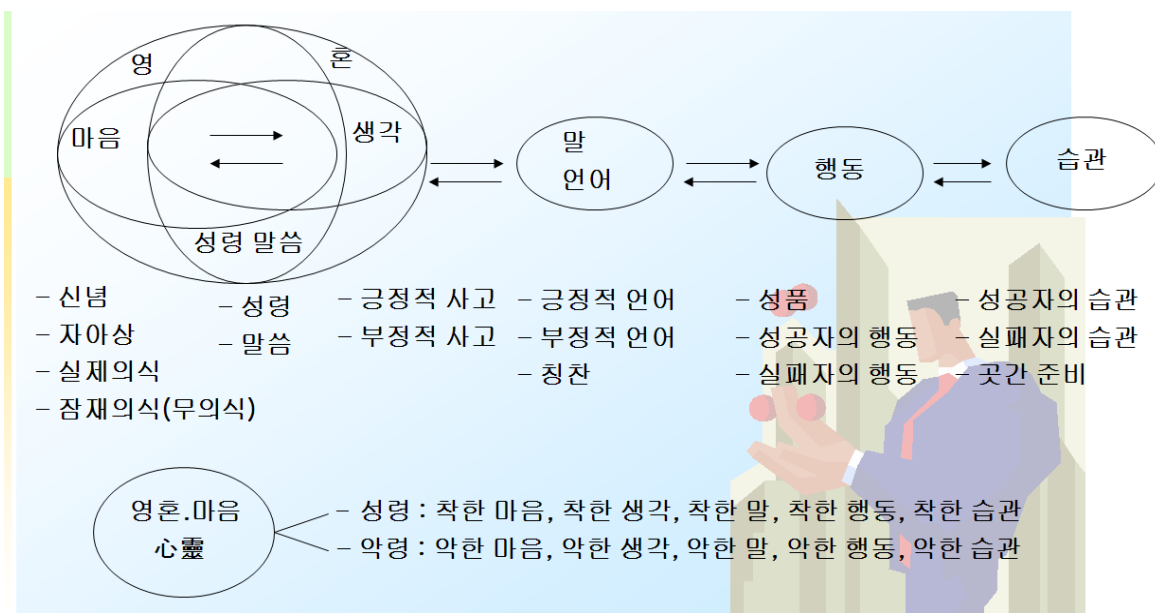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장9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신명기 8:18)

성서 시편에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37:4) 마음의 소원과 욕기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기 3: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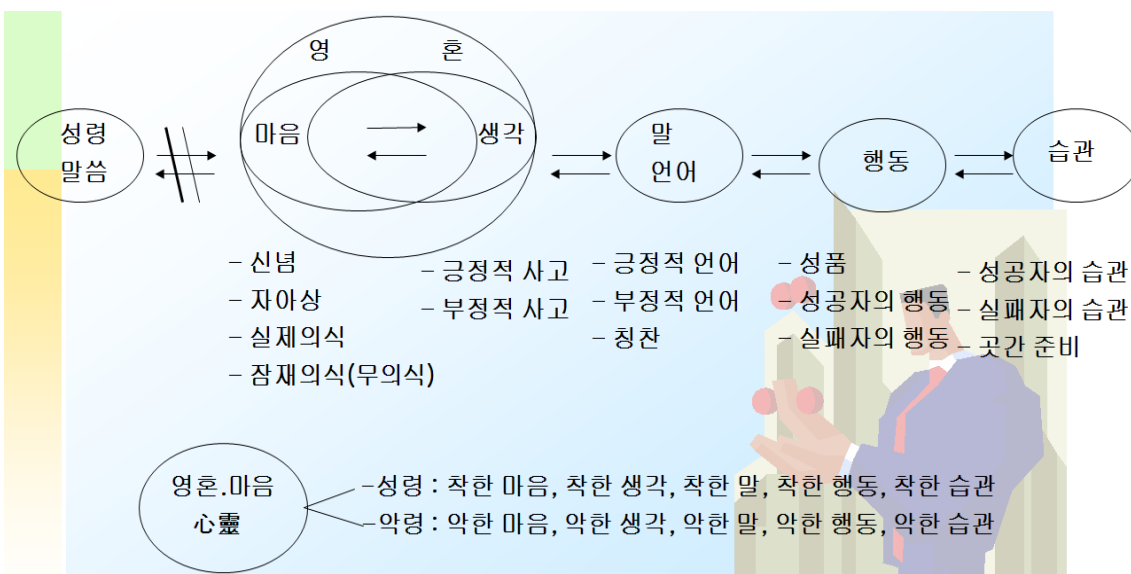
4.2.3 비 크리스찬의 부유학에 관한 체계

비크리찬의 경우 부유학에 관한 일반 문헌에 의하면 마음 관련 성공 부유, 생각과 관련 한 성공 부유,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유,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유, 언어 관련 성공 부자, 행동 관련 성공 부자, 습관 관련 성공 부자에 관한 것들을 실천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크리스찬 부요학(부유학)의 체계 >



< 비 크리스찬 부요학(부유학)의 체계 >



V. 결 론

우리나라의 일정 36년간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32.4세, 여자는 35.1세로 평균 33.7세 이던 것이 6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남자가 74.36세, 여자가 81.20세 평균 77.78세로 약 60년 간 약 44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면 우리나라도 120세가 다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구약성서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 :3)” 말씀하시어 120세에 대한 언급이 있고, 모세도 120세에 사망을 하였다. 최근 인간의 기록에 의한 최고령자는 프랑스 출신의 잔 루이즈 깔망(Jeanne Louise Calment) 할머니로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서 1997년 8월 4일에 122세로 사망을 하였다. 이렇게 볼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 전후로 근접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이후에 생활이 늘어나게 되어 은퇴설계의 중요성과 은퇴 이후의 부요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어 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급격히 감소하고 동시에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OECD가입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젊은이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다원적 연금제도 (multi-pillar pension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연금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위한 제도로는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3층 보장 제도로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연금 등 3원 체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도 이와 같은 3층 보장제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의 노후 소득을 마련한다고 해서 은퇴설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기 보다 은퇴후의 생활기간이 더 길어져 가고 있어 은퇴설계는 전 인생설계 차원에서 부유하고 행복한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인생설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성서를 통해 부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 관련 성공 부유, 생각과 관련 한 성공 부유,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유,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유, 언어 관련 성공 부자, 행동 관련 성공 부자, 습관 관련 성공 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크리스찬이 성공하고 부요하기가 비 크리스찬에 비하여 유리한 것은 성령이 말씀을 수레삼아 크리스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쉽게 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신명기 8:18)

비크리찬의 경우 부유학에 관한 일반 문헌에 의하면 마음 관련 성공 부유, 생각과 관련한 성공 부유, 잠재의식과 이미지 관련 성공 부유, 긍정적 사고 관련 성공 부유, 언어 관련 성공 부자, 행동 관련 성공 부자, 습관 관련 성공 부자에 관한 것들을 실천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유하고 행복한 은퇴이후의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은퇴이후의 생활을 위해 일, 건강, 인간관계, 취미활동, 자금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상현 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 박정윤,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증권투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 박정윤, 『행복한 부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7.
- 박홍민, 이경희,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2002. 3.
-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 방하남 외 5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II』,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베니 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레도, 2000.
- 삼성금융연구소, 『DC형 기업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2001. 9.
- 석재은 외 6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0.
- 스코트 앤더슨, 『하나님의 부자학』, 북마크, 2008.
- 캐서린 폰더, 『성서속의 백만 장자』, 국일미디어, 2003.
- 하능식, “공적연금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부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2. 5.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02
- 한국 FPSB, 『AFPK 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2004
- 한국 FPSB, 『CFP 은퇴설계와 종업원 복리후생』, 2004
- 헨리 워메리이런즈,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 올리브 북스, 2008.
- Asher, Mukul G., “Pension Reform,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Malaysia,”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liance*, 2001, vol.9, No.1
- Cagan, Phillip, *The Effect of Pension Plans as Aggregate Savings*, New York: NBER,

1965

- Davis, E. Philip, "Pension Funds" in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1999
- Feldstein, Martin, "Do Private Pensions Increase National Saving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 1978
- Hubbard, Glenn R., "Pension Wealth and Individual Saving: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8, 1986
- Gluski, Andres R.,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94
- Grushka, Carlos, "An Overview of the Reformed Pension Systems in Latin America", OECD 2000 Private Pensions Conference No.3, OECD, 2000
- Impavido, Gregorio and Alberto R. Musalem, "Contractual Savings, Stock and Asset Market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2000
- Katona, George, *Private Pensions and Individual Saving*,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5
- Laboul, Andre,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Ageing Working Papers*, Awp 2.2, OECD, 1998
- OECD,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stical Yearbook*, 2001a
- _____, OECD 2000 Private Pensions Conference No.1, 2001b
- _____, OECD 2000 Private Pensions Conference No.3, 2001c
- Vittas, Dimitri, "Pension Reform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Feasibility and Impact Conditions,"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2000